

종루

호코쿠지 절의 본당 정면에 위치한 종루는 경내에서는 유일하게 옛 전통 그대로의 갈대지붕을 얹은 건조물입니다. 과거에는 본당 또한 갈대지붕이었으나,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본당을 포함한 경내 대부분의 건조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절을 재건하면서 본당에는 기와지붕을 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아치 형태를 띠고 있고 최상부의 일부가 기와로 덮여 있는 종루의 갈대지붕을 보면, 본당의 지붕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호코쿠지 절에 있던 종은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철 조달로 인해 징수되면서 없어졌지만, 전쟁이 끝나고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은 예로부터 하루의 근행(勤行)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호코쿠지 절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특별한 날에만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은 한밤중에 108번 울립니다. 이는 중생들이 겪는 괴로움을 일컫는 108번뇌를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루 옆 호코쿠지 절의 묘지에는 수령이 300년으로 알려진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선명한 노란빛으로 물든 낙엽이 바닥에 양탄자가 깔린 것처럼 길을 가득 메웁니다. 봄에는 만개한 벚꽃과 철쭉이 지역 일대를 다채로운 핑크빛으로 물들입니다.